지역 소식통

부안군, 수소전기차 총 10대 민간 보급

부안군은 올해 총 10대의 수소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5일부터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0년 6월 10일 현재 부안군에 1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등으로 차량출고 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해 1대당 36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부안 제3농공단지에 1개 수소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전북에서는 완주군에 위치한 완주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바닷길 진출입로 정비사업 조기준공 호응

고창군이 바다 양식장으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예정보다 2개월 먼저 준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순수 군비 9000만원을 투입해 심원면 용기마을 제방 호안보수 35m와 부안면 반월·상포 마을 바닷길 진출입로 230m 개설을 완료했다. 군에선 어민들의 생계인 수산자원의 양식과 각종 수산물 채취 등을 위해 경운기, 트랙터 등 운반 수단의 어장 진·출입을 위한 바닷길 진출입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간 바닷길 진출입로 사업은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 골재채취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도비로 지원받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해 EEZ에서 바다골재 채취가 중단돼 순수 군비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고창군청 라남근 해양수산과장은 "지역 어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장에 출입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바닷길 진출입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정읍시, 사이버 침해사고 증가 따라 피해 최소화 총력
모의훈련 통해 대응 매뉴얼 숙지 등 역량키우기 나서

정읍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뒤 초기대응이 미흡한 경우 자칫하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묘하면서도 일상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 11일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응 지침에 따른 상황별 대처 방법 숙지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정읍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상 상황을 설정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 대응센터 설치, △초기 긴급조치, △이용자 유출 통지, △관계기관 신고, △피해자 구제 방법 안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 및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조직별, 개인별 행동수칙을 숙지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침해사고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의훈련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해 영농환경 개선에 나섰다.

정읍시, 영농환경 개선 집중

농촌 용수 개발사업 국비 385원 확보… 현대화 등 29km 정비

정읍시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해 영농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용수 개발사업'에 산외면 상정지구와 석우·용흥지구가 선정돼 국비 385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외면 상정지구 농촌 용수 개발사업에 265억원, 석우·용흥지구 배수개선사업 1단계에 120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이 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 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를 통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피해지역 농촌 용수 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인 사업 건의를 한 결과 이 같은 결실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산외 상정지구 농촌 용수 저수지 확장과 용수로(16.3km)를 정비하고 석우 용흥지구 1단계(후지리 배수장·배수로 5.6km)와 2단계(용흥리 배수장·배수로 7.1km)를 완료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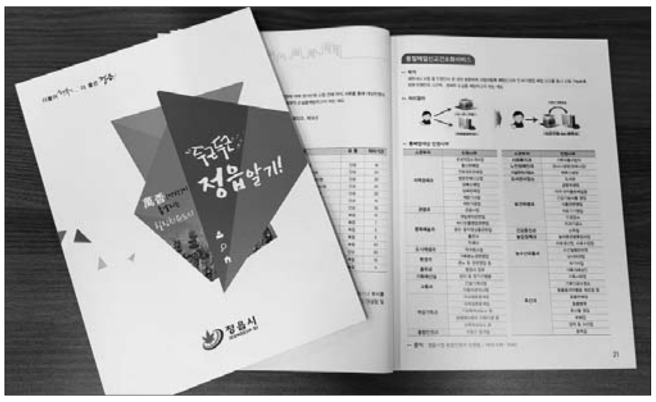
시에 따르면 영원면 석우지구와 고부면 용흥지구 일원은 평야 지대 농경지를 관통하는 배수로의 통수 단면이 적어 하천 합류 시 병목현상으로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다.

장마철 등 국지성 호우시마다 농경지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산외 상정지구 일원은 농촌 용수 미개발로 물차를 동원해 비상 급수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수 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농촌 용수 개발사업' 대상지구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유진섭 시장은 "석우·용흥지구 배수 개선과 산외 상정지구 농촌 용수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은 물론 가뭄 상습지역에 농촌 용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두근두근 정읍 알기' 생활 안내 책자 배부

각종 생활 정보 '한 눈에'



정읍시가 새롭게 정읍시로 전입하는 주민을 위한 생활 안내 책자 '두근두근 정읍 알기'를 발간했다.

정읍시가 새롭게 정읍시로 전입하는 주민을 위한 생활 안내 책자 '두근두근 정읍 알기'를 발간하며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전입하는 주민들이 지역에 원활하게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읍시의 각종 생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했다.

내용 구성은 분야별로 △민원, 세무, 환경과 관련된 '생활민원정보, △문화, 체육 정보를 수록한 '문화체육 정보', △장애인, 보육 지원, 보건소 사업 등을 소개하는 '복지 건강정보, △도서관, 교육지원 정보 등을 수록한 '교육 정보' △전통시장과 지역상점 등을 안내하는 지역경제 정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시의 정책 및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읍시 부서별 업무와 주요 민원 관련 전화번호도 기재해 전입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 안내 책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외 거주자가 전입신고 시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정읍 생활이 처음이거나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지 않은 전입자 등이 낯선 환경에서 쉽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에 발간한 안내 책자에는 전입 시민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엄선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유익한 생활 밀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올 1기분 자동차세 42억 3천만 원 부과

정읍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8,851건에 대해 4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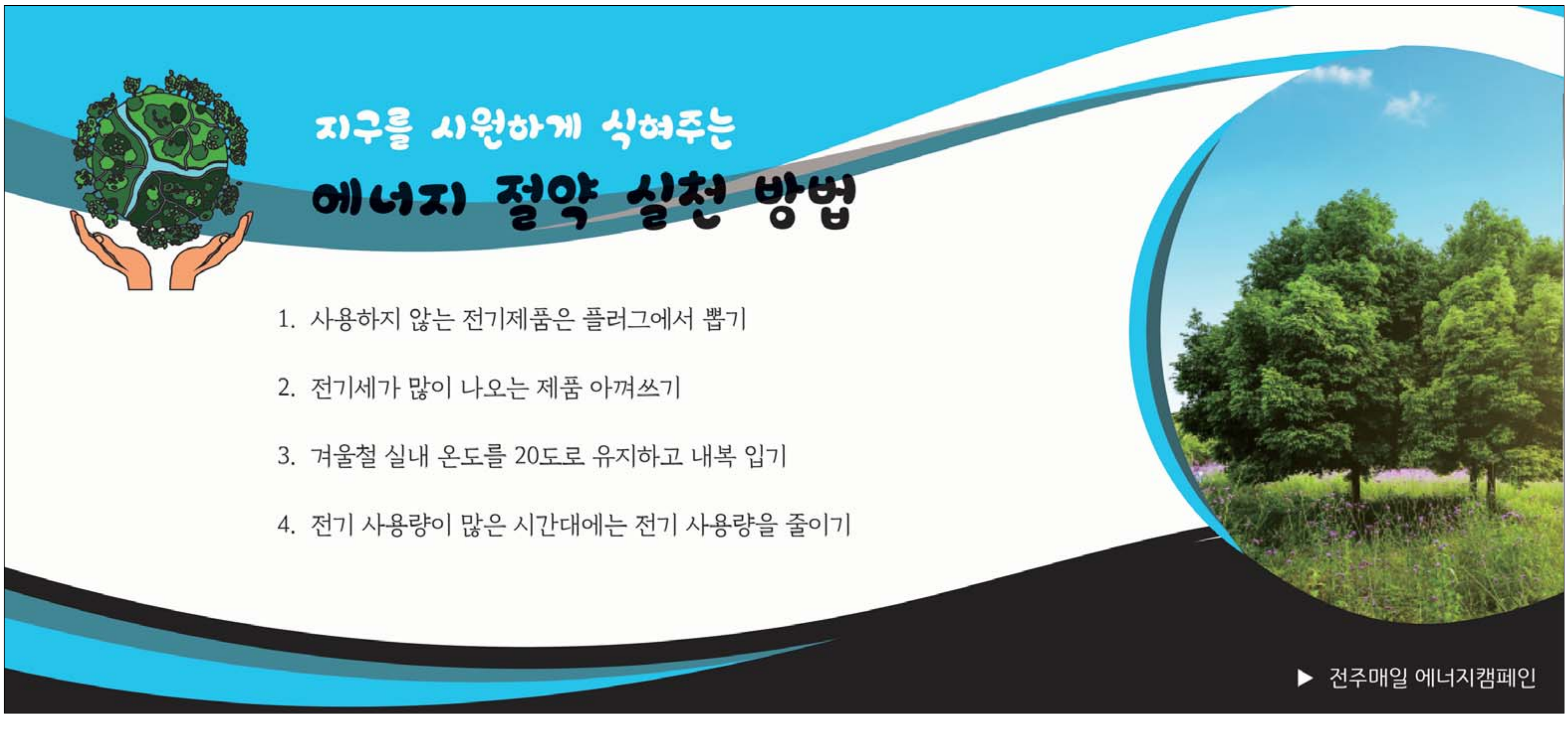
특히, 올해 6월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현재 19개 금융기관 이용 가능)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부안군은 코로나19의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 시스템 설치 및 활용법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시스템 의무 도입한 제도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유흥시설 이용자 수기 명부의 경우 허위정보 기재 및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새로이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경우, 이용자 QR코드가 암호화되어 역학조사가 필요할때만 방역 당국의 요청이래 이용자를 식별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

군 담당자는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 이용자 모두 코로나19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